

# 건강한 노년을 넘어, 아름다운 노년으로

## 한국뷰티헬시에이징국제교류회 이유리 회장 강연



2024년 추계 헬시에이징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은 한국 뷰티헬시에이징국제교류회 회장이자 더유리아트앤컬처 (TUANC)의 운영자인 이유리 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해당 세션은 신체적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 강연들과 달리, 마지막 세션에서는 노년의 정신적 건강을 주제로 다뤘다.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은 종종 신체적·정신적으로 갇힌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TUANC의 도자건축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제공한다. 도자건축은 작가가 세계 각지에서 영감을 받아 도자기로 만든 건축 모형으로, 환자들이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모험 집을 통해 넓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유리 회장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인용하며, "노인의 비극은 그가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마음과 정신은 젊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신체는 나이를 먹어도 마

음과 정신은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어 이유리 회장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논하며, '꼰대'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노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 생활은 체형에, 본심은 행동에, 미의식은 손톱에, 청결함은 머리에, 배려는 식사 예절에,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스트레스는 피부에, 차별하지 못함은 다리에,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하며, 내면적·외면적 요소를 가꾸고, 친절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노년을 넘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유리 회장은 김형석 교수의 대표적 저작인《고독이라는 병》 도서를 인용하며,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는 것만큼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교수는



이 책에서 고독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경험으로 설명하며, 때로는 병처럼 느껴지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인간을 더 깊은 성찰과 성숙으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고독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내면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유리 회장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행위가 고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악에 몰입하거나, 그림에서 위안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서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고독은 단순히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예술과 아름다움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유리 회장은 "고독 속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안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답게 사는 삶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 나이인 것은 아니다. 아직은 퇴장할 때가 아니다."는 격언을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뷰티헬시에이징국제교류회는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건강한 노화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단체다. 이유리 회장이 운영하는 TUANC는 예술과 의료를 융합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이 정신적 치유와 위로를 제공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TUANC는 도자건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뮤지엄 갤러리를 비롯한 병원 로비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의료와 예술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부터 건강소비자연대 강연수 대표, 한국뷰티헬시에이징국제교류회 이유리 회장, 그리고 한국헬시에이징학회 김철중 회장